

... 휴맥스, 인도 헤스웨이와 600만달러 수출계약

휴맥스(대표 변대규)가 인도의 3대 복수케이블방송사업자(MSO) 중 하나인 헤스웨이사와 600만달러(72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우선 6월과 7월 두달에 걸쳐 600만달러 규모의 디지털 케이블방송용 셋톱박스를 헤스웨이에 공급하고 향후 2년간 헤스웨이가 필요한 추가 물량을 생산, 수출한다.

헤스웨이는 인도의 9개 대도시에 거점을 두고 300만명이 넘는 시청자

와 80개 이상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티케이블, 인케이블과 함께 인도의 3대 MSO로 꼽히는 우량 MSO다.

수출제품은 영국 NDS사의 수신제한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을 내장한 셋톱박스(모델명 ND-1000C)로 이번 계약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케이블 TV시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넷마블-플레너스 합병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대표 김정상, 이하 플레너스)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온라인게임 업체 넷마블(대표 방준혁)과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오는 8월중 합병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합병비용은 1대 1로 결정됐고 플레너스의 주가 2만582원을 기준으로 하면 넷마블의 가치는 2920억원으로 평가됐다. 합병이 완료되면 넷마블의 방준혁 대표는 지분을 25.7%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며 로커스가 9.4%, 강우석 영화감독이 6.9%의 지분을 차지하게 된다.

합병 후 플레너스의 총 발행 주식수는 2114만 456주(합병신주 695

만3321주 포함)이며 자본금은 105억원으로 증가된다.

방 대표가 부여받은 합병신주 518만여주는 오는 2005년 8월까지 보호예수된다.

이후 플레너스의 경영구도는 플레너스의 인터넷 사업부문을 방준혁 대표가, 영화 사업부문은 김정상 대표가 각각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11월 플레너스(당시 로커스홀딩스)에 100억원의 가치로 인수된 넷마블은 1년 반만에 기업가치가 29배로 급증했으며 자회사의 대표가 모회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 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분석기 美FDA 승인 획득

바이오스페이스(대표 차기철)는 체성분분석기 '인바디(InBody)'가 3년 만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방·단백질·무기질 등 신체부위별 성분분석이 가능한 인바디의 '8점 터치식 전극법'이 세계 특허를 받을 정도로 측정방법이 새로운 방식이어서 까다로운 FDA 승인과정을 거친 끝에 임상정확도 등 우수성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스페이스측은 이를 계기로 현재 운영중인 일본 및 독일 판매법

인 외에 미국 법인을 연내 설립,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인증을 모두 획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차기철 대표는 "미국 시장 규모는 43만여 곳의 의료기관과 2만4000여 곳의 헬스장 등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계 시장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주성엔지니어링, 美마이크론 전 부사장 영입

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은 지난 달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국 마이크론 전 부사장 트링 도운(Trung T Doan·56)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주성은 황철주 현 사장과 트링 도운 신임 사장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영근 전무는 "신임 트링 도운 사장은 미국 마이크론의 부사장을 지내면서 전세계 반도체업체와 활발한 비즈니스를 벌인 해외 비즈니스 스텐인 만큼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임 사장 전격 영입 결정과 관련해 "올해부터 주성이 미국 등 해외 비즈니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트링 도운 신임 사장은 주성이 3년 전부터 마이크론과 거래를 하면서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것이 이번 영입의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트링 도운 사장은 베트남 출신으로 인텔 수석연구원, 필립스 수석연구원을 지냈으며 지난 9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마이크론 부사장을 역임했다.